

교촌에프앤비 (339770)

2025년 해외 확장과 이익 턴어라운드

글로벌 100호점 기대, K-치킨 확장의 원년

교촌에프앤비가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 수 100개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해외 확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미국은 기존 직영점 확대와 다크키친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는 마스터프랜차이즈 전략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존 LA 직영점 확대 및 다크키친 점포 수를 연내 6개로 늘려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신규 매장 확대와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가맹본부 직영화 효과 본격화, 국내 수익 개선

국내 시장에서는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 효과가 본격화된다. 전국 23개 가맹지역본부를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약 120억원이 절감되며, 영업이익률이 2025년부터 10%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점포당 매출 확대와 효율적인 배달 운영 및 프리미엄 메뉴 전략을 통해 내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5년은 국내 사업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 최상위 배당성향 유지, 배당 매력 부각

교촌에프앤비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배당금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5억원, 배당수익률은 약 4% 수준으로 업종 내 최고 수준이다. 향후 실적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배당성향 확대 가능성이 높아, 당사는 실적 턴어라운드뿐 아니라 배당 매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2025년 매출액은 5,503억원(YoY+14.5%), 영업이익은 575억원(YoY+277.1%, OPM 10.4%)을 전망한다. 현재 주가는 2025년 예상 PER 7배 수준으로 국내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으며, 글로벌 확장과 국내 구조조정에 따른 뚜렷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126	13.3	-1.3	121	3.9
영업이익	6	-22.5	-27.6	10	-47.1
세전계속사업이익	2	-16.3	-74.4	10	-84.1
지배순이익	-3	적전	적전	8	-134.8
영업이익률 (%)	4.4	-2.0 %pt	-1.6 %pt	8.6	-4.2 %pt
지배순이익률 (%)	-2.2	적전	적전	6.6	-8.8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517	445	481	550
영업이익	9	25	15	58
지배순이익	5	14	2	41
PER	60.3	14.7	71.5	7.1
PBR	1.8	1.1	0.8	1.3
EV/EBITDA	18.7	7.0	6.8	4.2
ROE	3.0	7.8	1.0	20.6

자료: 유안타증권



손현정 음식료/전력기기

hyunjeong.son@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직접 목표주가

0원

현재주가 (3/10)

5,81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903억원
총발행주식수	49,965,08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1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48,478주
52주 고/저	6,000원 / 3,873원
외인지분율	0.98%
배당수익률	4.03%
주요주주	권원강 외 10 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9.2	16.2	41.2
상대	7.1	9.3	47.3
절대 (달러환산)	9.1	14.2	28.4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국내외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1. 국내 시장: 성장 둔화 속 양극화 심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은 현재 약 659개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으며, 상위 3사(BBQ, 교촌, BHC)가 전체 가맹점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과점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약 3만 개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대비 약 3,000개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매장 수 증가율은 2020년 6.3%에서 2022년 2.5%로 급격히 둔화되며 신규 출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배달앱 중심 소비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대형 브랜드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매장 비중은 2022년 전체 치킨 매장의 71%까지 높아졌으며, 배달 수수료 부담과 경쟁 심화로 인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 비중이 전체의 약 64%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무리한 출점보다는 점포당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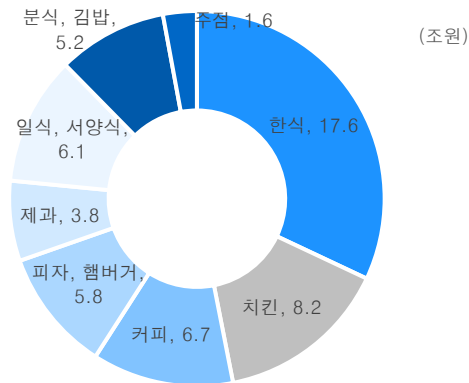
2023년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약 55조 원이며, 이 중 치킨 시장 규모는 약 8.2조 원(YoY +7.9%)으로 추산된다. 2024년 치킨 시장 규모는 8조 원 후반대로 확대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약 26마리로 높은 수준이며,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외식 산업 내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해외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둔화와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국식 치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류 문화 및 K-푸드 인기 확산과 맞물려 한국식 치킨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도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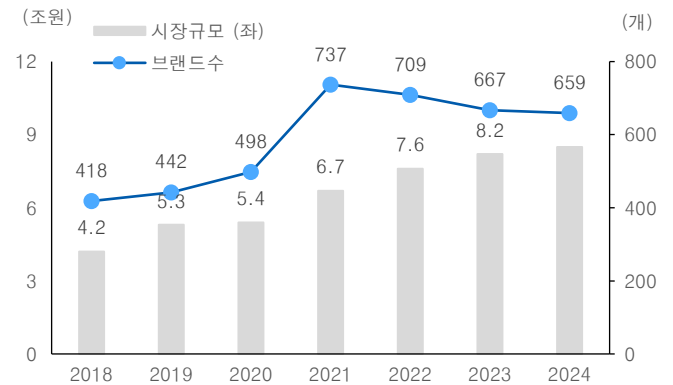
다만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소비자 취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KFC, Popeyes 등 기존 글로벌 치킨 브랜드와의 경쟁 또한 불가피하다. 실제로 2000년대 초 BBQ와 교촌 등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현지 배달 문화 미성숙, 낮은 브랜드 인지도, 높은 운영비용 등으로 일부 시장에서는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한인 교포뿐 아니라 현지 젊은층까지 K-치킨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이 다시 한번 업계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중장기적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55조원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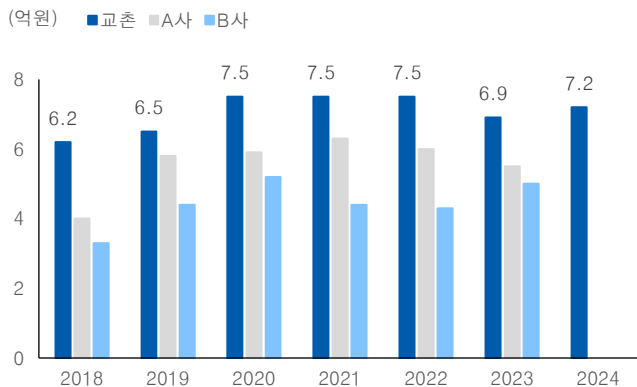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기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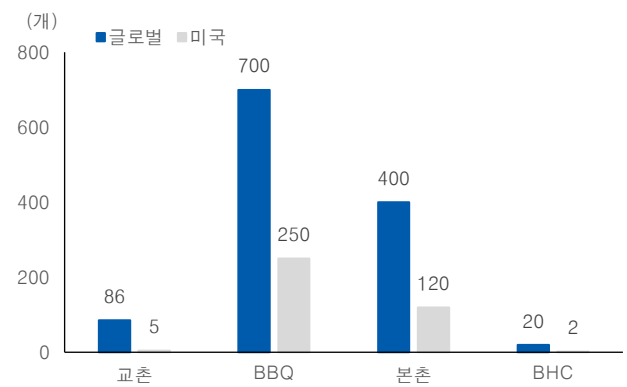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TOP3 매장당 매출 추이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기준

국내외 치킨프랜차이즈 해외 매장 수



자료: KF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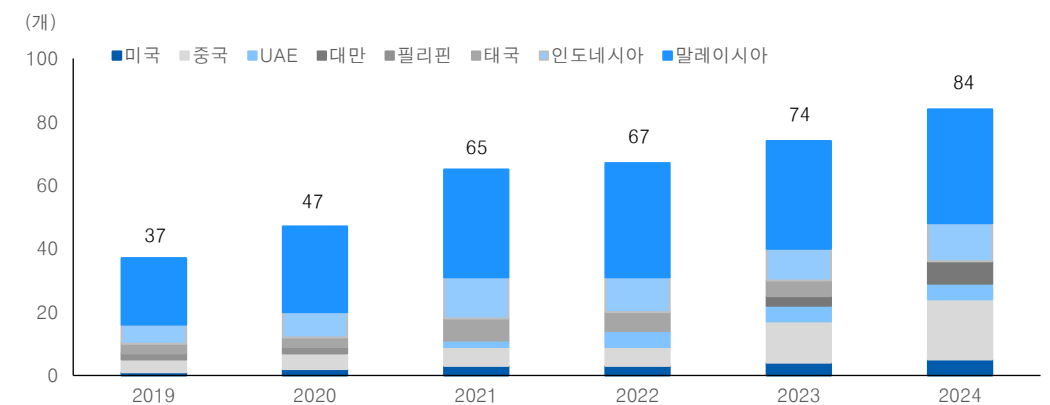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K-치킨 글로벌 진출 본격화

교촌에프앤비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치킨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5년 해외 매장 수는 전년(2024년 84개) 대비 약 20% 증가한 1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촌은 단순한 매장 수 증가보다는 마스터프랜차이즈를 통한 로열티 수익과 소스 및 부자재 수출 확대 등 수익성 중심의 해외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마스터프랜차이즈 모델의 경우 로열티(매출 대비 3~5%)를 부과하는 구조로, 별도의 자본 투자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만 킹자이인터내셔널(공차 운영사)과 같은 강력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소스 제조를 담당하는 100% 자회사를 통해 부가 매출까지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글로벌 매장 수 추이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미국 시장: 직영점과 다크키친 모델로 수익성 극대화

미국 치킨 시장은 약 80조 원 규모로 한국 대비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며,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약 40마리로 매우 높은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촌은 2008년 미국 시장에 진출해 현재 LA 지역 중심으로 직영점 3곳을 운영 중이며, 가장 큰 규모인 1호점(2023년 매출 40억 원)은 2025년 가을 리모델링 재오픈 예정이다. 또한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운영 효율성 개선을 위한 서빙 로봇 및 조리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투자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크키친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크키친 매장(2개)을 2025년 말까지 총 6개, 2028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마스터프랜차이즈 파트너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미국 전역 확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1) 중국 및 동남아 시장: 마스터프랜차이즈 통한 빠른 확장

교촌은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와 가맹 모델을 통해 빠르게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해, 항저우, 심천 등에 직영점 7개 및 마스터프랜차이즈 매장 12개를 운영 중이며, 2025년 2월에는 심천 지역에 신규 직영점을 개설했다.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을 중심으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프랜차이즈 확장을 진행 중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10년 이상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미 36개 매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맞춤형 메뉴 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만의 경우 현재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2025년 하반기 신규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준비 중이며, 향후 태국, 필리핀 등 유사 시장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촌에프앤비 글로벌 사업 구조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

교촌에프앤비는 2025년 본격적인 국내 수익성 개선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핵심은 가맹지역 본부의 직영 전환이다. 2024년까지 전국 23개 가맹지역본부를 본사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종료되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가맹지역본부 인수 과정에서 지불된 지급수수료(본부당 평균 10억 원, 총 230억 원 규모)가 4Q24부터 완전히 사라져 본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급수수료 제거 효과로 인해 2025년 본사 영업이익률(OPM)은 1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 직영화로 인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본사에 직접 반영되어 연간 약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매출뿐 아니라 연간 약 120~130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고마진 형태로 개선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가맹지역본부 통합 효과는 판관비 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기존 가맹본부에서 중복 발생하던 인건비, 관리비가 축소되고, 중앙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물류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포츠(골프) 마케팅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광고비가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 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점포당 매출 성장 및 운영 효율화 전략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출점보다는 객단가 상승과 주문량 증가를 통해 점포당 매출을 극대화하고, 가맹점 맞춤형 운영 지원, 재고·인건비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자체 주문 앱 활용 비중을 늘리고, 효율적인 배달 운영 모델을 구축해 배달비 절감 효과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프리미엄 메뉴 출시 및 전략적 가격 정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충성 고객층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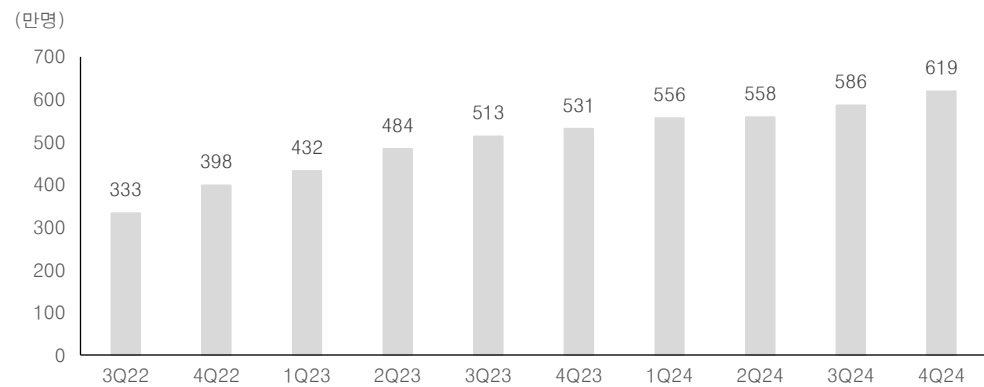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025년은 교촌에프앤비의 구조조정 성과가 온전히 실적에 반영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30억 원 규모의 지급수수료 제거가 직접적인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 최적화 및 효율화 전략을 통해 국내 사업 수익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향후 지속 가능한 실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촌에프앤비 가맹지역본부 직영 전환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촌 주문 앱 가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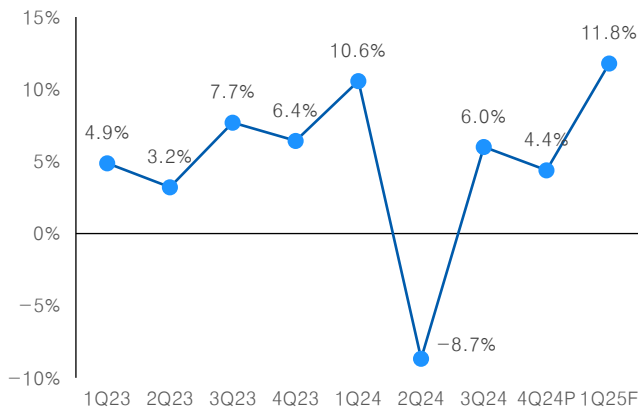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주주환원 정책 – 배당 확대 및 안정적 주주 가치 제고

교촌에프앤비는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4년 배당금은 65억원(+12% YoY)으로 증액되었으며, 배당수익률은 4%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에도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 성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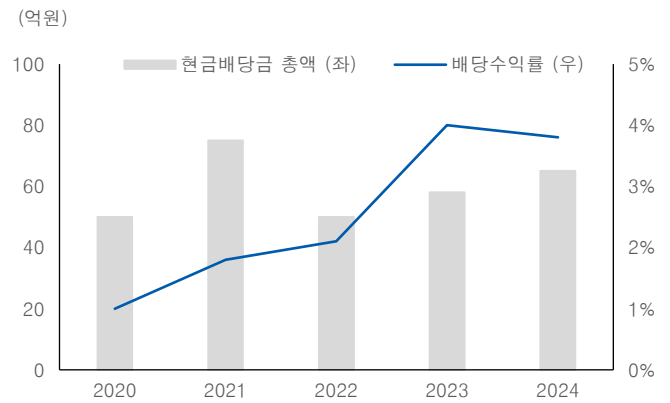
배당금 증액과 최대주주 차등배당을 유지하면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4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을 통한 환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배당 확대를 기반으로 주주 가치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교촌에프앤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기준

교촌에프앤비 배당 현황



자료: 교촌에프앤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및 밸류에이션

2025년은 국내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확장이 실적과 기업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2025년 매출액 5,503억 원(YoY +14.5%), 영업이익 575억 원(YoY +277.1%, OPM 10.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맹지역본부 직영 전환으로 인한 판관비 절감과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확장도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직영점 및 다크키친 모델 확대를 통해 가맹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는 마스터프랜차이즈 모델을 활용한 점포 확장과 로열티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본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025년 예상 PER은 7배 수준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동사의 안정적인 배당 정책(배당성향 40% 유지)과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촌에프앤비 실적테이블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P	1Q25F	2Q25F	3Q25F	4Q25F	2023	2024P	2025F
매출액	113.3	113.9	127.6	125.9	128.8	134.4	139.3	147.9	445.0	480.6	550.3
국내 프랜차이즈	105.1	104.9	118.8	118.2	119.0	124.7	130.0	136.8	413.8	447.1	510.6
글로벌	4.2	4.9	5.2	4.8	5.7	6.0	6.3	6.7	17.8	19.2	24.6
신사업	3.9	4.0	3.6	2.9	4.2	3.7	2.9	4.4	13.4	14.3	15.1
% YoY	-5.9%	11.7%	14.5%	13.3%	13.7%	18.0%	9.2%	17.4%	-14.0%	8.0%	14.5%
국내 프랜차이즈	-6.4%	11.6%	14.6%	14.0%	13.4%	5.0%	10.0%	15.0%	-14.8%	8.1%	14.2%
글로벌	-11.1%	13.0%	18.2%	13.2%	14.8%	15.0%	30.0%	18.0%	1.4%	7.9%	28.1%
신사업	18.0%	13.2%	7.3%	-10.5%	3.3%	3.0%	2.0%	5.0%	-5.4%	7.2%	5.5%
% 매출비중											
국내 프랜차이즈	92.8%	92.1%	93.1%	93.9%	92.4%	92.8%	93.4%	92.5%	93.0%	93.0%	92.8%
글로벌	3.7%	4.3%	4.1%	3.8%	4.4%	4.5%	4.5%	4.5%	4.0%	4.0%	4.5%
신사업	3.4%	3.5%	2.8%	2.3%	3.2%	2.7%	2.1%	2.9%	3.0%	3.0%	2.7%
영업이익	12.0	-9.9	7.6	5.5	15.2	14.2	14.0	14.2	24.8	15.2	57.5
% YoY	103.9%	-401.2%	-10.7%	-22.6%	27.0%	흑전	83.2%	156.1%	181.0%	-38.6%	277.1%
% 영업이익률	10.6%	-8.7%	6.0%	4.4%	11.8%	10.5%	10.0%	9.6%	5.6%	3.2%	10.4%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교촌에프앤비 (339770) 추정재무제표 (K-IFRS)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517	445	481	550	611
매출원가	428	337	333	375	416
매출총이익	89	108	148	176	195
판매비	81	83	132	118	123
영업이익	9	25	15	58	72
EBITDA	18	34	24	66	80
영업외손익	-2	-7	-8	-7	-6
외환관련손익	0	0	0	0	0
이자손익	0	-1	-1	0	1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2	-6	-7	-7	-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	18	8	51	67
법인세비용	2	5	6	10	16
계속사업순이익	5	13	2	41	51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	13	2	41	51
지배지분순이익	5	14	2	41	51
포괄순이익	6	11	0	40	49
지배지분포괄이익	6	13	1	45	56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영업활동 현금흐름	5	20	8	45	54
당기순이익	5	13	2	41	51
감가상각비	8	9	8	8	7
외환손익	0	0	0	0	0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5	-12	-9	-10	-9
기타현금흐름	-4	11	6	6	6
투자활동 현금흐름	-28	-31	-4	-5	-5
투자자산	0	-1	0	-1	-1
유형자산 증가 (CAPEX)	-13	-32	0	0	0
유형자산 감소	0	4	0	0	0
기타현금흐름	-15	-2	-3	-4	-4
재무활동 현금흐름	36	10	-9	-6	-10
단기차입금	52	2	1	1	1
사채 및 장기차입금	-1	17	0	0	0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7	-5	-6	-4	-7
기타현금흐름	-6	-4	-4	-4	-4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1	0	6	8	8
현금의 증감	14	-1	2	42	48
기초 현금	48	62	61	63	105
기말 현금	62	61	63	105	152
NOPLAT	9	25	15	58	72
FCF	-8	-11	8	45	54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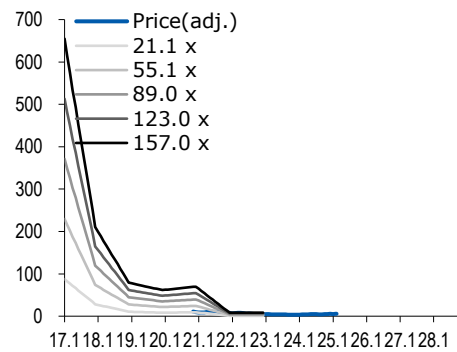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유동자산	111	111	117	167	222
현금및현금성자산	62	61	63	105	15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2	10	12	13	15
재고자산	18	20	22	25	28
비유동자산	194	215	207	200	193
유형자산	166	187	179	171	164
관계기업 등 자본관련 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5	8	9	10	10
자산총계	305	326	325	367	415
유동부채	103	100	103	110	1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2	25	27	31	35
단기차입금	54	55	55	55	55
유동성장기부채	3	2	2	2	2
비유동부채	23	41	41	41	41
장기차입금	13	32	32	32	32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126	141	144	151	157
지배지분	179	187	181	217	259
자본금	13	13	13	13	13
자본잉여금	53	53	53	53	53
이익잉여금	116	124	120	158	201
비지배지분	0	-1	-1	-1	-1
자본총계	179	186	180	216	258
순차입금	10	30	28	-15	-64
총차입금	87	106	106	108	109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EPS	107	287	76	821	1,018
BPS	3,579	3,737	7,262	4,348	5,187
EBITDAPS	354	688	962	1,313	1,595
SPS	10,356	8,905	19,239	11,014	12,229
DPS	100	150	150	150	150
PER	60.3	14.7	71.5	7.1	5.7
PBR	1.8	1.1	0.8	1.3	1.1
EV/EBITDA	18.7	7.0	6.8	4.2	2.8
PSR	0.6	0.5	0.3	0.5	0.5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증가율 (%)	1.9	-14.0	8.0	14.5	11.0
영업이익 증가율 (%)	-78.4	181.0	-38.6	277.1	25.6
지배순이익 증가율 (%)	-82.1	168.8	-86.7	2,052.3	24.0
매출총이익률 (%)	17.3	24.3	30.7	31.9	31.9
영업이익률 (%)	1.7	5.6	3.2	10.4	11.8
지배순이익률 (%)	1.0	3.2	0.4	7.5	8.3
EBITDA 마진 (%)	3.4	7.7	5.0	11.9	13.0
ROIC	4.2	10.0	2.0	25.7	31.8
ROA	1.9	4.5	0.6	11.9	13.0
ROE	3.0	7.8	1.0	20.6	21.4
부채비율 (%)	70.2	75.9	80.0	69.9	60.8
순차입금/자기자본 (%)	5.5	16.0	15.2	-7.0	-24.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8.9	8.2	4.6	17.1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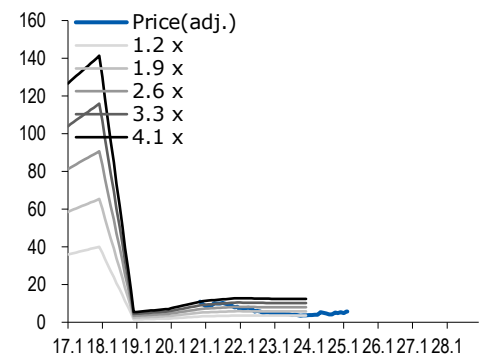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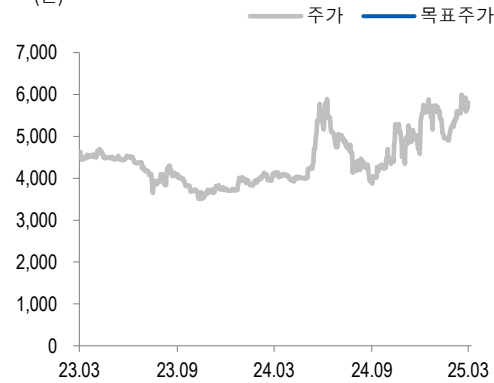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 원)



교촌에프앤비 (3397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3-11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8.7
Hold(중립)	11.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3-10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손현정**)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